

百濟6세기 후반 蠟石製 佛像 研究*

金 春 實**

- I. 머리말
- II. 납석제 불상의 예
- III. 납석제 불상의 양식 특징과 三國時代 初期石佛의 문제
- IV. 새로 발견된 百濟 6세기 불상
- V. 日本 飛鳥時代 止利樣式 불상과의 비교
- VI. 맺음말

I. 머리말

百濟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384년(枕流王 元年) 南朝인 東晉에서 胡僧 摩羅難陀가 오면서 부터이다. 곧 이어 漢山에 절이 세워져서 예배상으로 佛像이 조성되었을 것이나 현존하는 백제의 불상 중에는 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예는 없다. 6세기의 부여 신리출토 금동여래좌상이나 군수리출토 납석제여래좌상 같은 禪定印 如來坐像의 예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초기 불상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6세기에 들어서도 현존하는 불상의 예가 高句麗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도 1 서산마애삼존불상, 7세기 전반

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어서 그동안 이 시기 불상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고, 6세기 말 이후 예산사면석불이나 태안마애불상, 그리고 서산마애불상 같은 상들이 출현한 이후의 불상들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조각의 특징이 언급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¹.

이와 같이 6세기 불상이 적은 상황으로 인해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對日交渉의 문제이다. 일본의 공식적인 불교 수용은 欽明天皇 13年(552년, 또는 538년) 백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飛鳥時代 불교문화의 발

달에 미친 백제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¹ 또한 이후 百濟와 日本과의 불교 관계 교섭은 高句麗나 新羅에 비해서 여전히 활발하여서 그 영향이 매우 컸음이 짐작된다.² 이를 반영하듯 현재 일본의 초기 불상들 중에는 法隆寺獻納寶物 143號 金銅三尊佛像이나 新瀉縣 關山神社 金銅捧珠菩薩立像같이 백제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들이 많으며^{도 2, 3} 이 상들의 조성 시기는 대체로 법륜사 금당의 釋迦三尊像(623년)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飛鳥時代に 불상 조성이 본격화되는 것은 606년 元興寺 本尊佛이나 623년 法隆寺 釋迦三尊佛像이 완성되면서부터인데, 이때 성립된 양식이 止利樣式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古代佛像樣式이다^{도 3}. 이 止利樣式에 속하는 佛, 菩薩像으로는 戊子年(628)銘 金銅三尊佛像, 법

¹ 『日本書紀』 欽明天皇 13年(552)條에는 백제의 聖王이 釋迦佛金銅像1軀, 幡蓋, 經論 약간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인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는 538년에 이미 百濟로부터 太子像, 灌佛器, 經典과 함께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² 백제와 일본 간의 불교 교류 기사는 다음의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金理那, 「百濟彫刻과 日本彫刻」, 『百濟의 彫刻과 美術』(공주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 1992), pp.166-167; 文明大, 「百濟 佛像彫刻의 對日交渉」, 『百濟美術의 對外交渉』(藝耕, 1998), pp.134-136.

³ 이외에도 法隆寺獻納寶物 151號 金銅如來立像, 鹿兒島 欽上町出土 金銅捧珠菩薩立像, 長野 觀松院 銅造半跏思惟像, 對馬島 淨林寺 金銅半跏思惟像, 東京國立博物館所藏 金銅半跏思惟像 등은 모두 百濟系 渡來佛로 알려지고 있다.



도 2 法隆寺獻納寶物143號 金銅三尊佛像,
7세기 초,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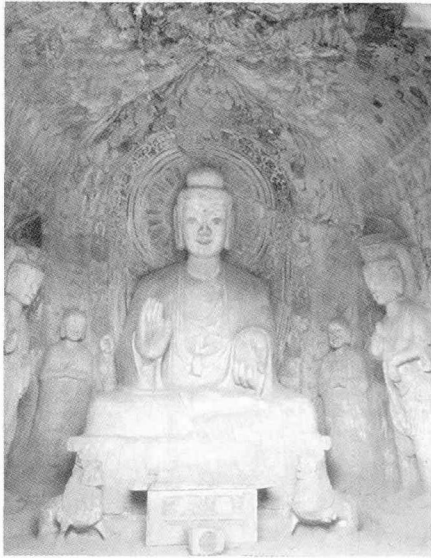


도 3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佛像, 일본 飛鳥時代 623년

류사 大寶藏殿의 捧寶珠菩薩立像, 法隆寺獻納寶物 149호 如來立像, 155호 半跏思惟像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류사 금당의 석가삼존상을 보면 현재 일본에서 전하는 초기 백제계 불상들보다도 더 古式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이 특이한 점이다. 즉 전체적으로 正面觀이 강하고 佛身의 양감이 없으며 大衣 착의형식이나 옷자락의 좌우 뻗침 등이 마치 중국의 北魏後期 불상을 보는 듯한데, 이는 이 불상들의 조성시기인 7세기 전반이라는 시기로 볼 때 매우 어울리지 않는 古式樣式이다.

이러한 법류사 석가삼존상의 고식적 조형 특징과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비교되는 백제의 6세기 불상이 적은 이유 등으로 인해, 일본 학계에서는 아스카시대 백제와의 불교문화 교류에 있어 밀접한 관련에도 불구하고 止利樣式의 如來坐像을 龍門石窟 賓陽中洞의 본존 여래좌상 같은 중국의 北魏後期 또는 東魏樣式의 상들과 직접 연결지어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⁴⁾. 우리나라 三國時代 불상과 관련을 짓는다면 주로 북위 후기 양식에 가

⁴⁾ 毛利久, 「佛像の東漸と飛鳥彫刻」, 『佛教東漸』(法藏館, 1983), pp.9-27.



도 4 龍門石窟 賓陽中洞 本尊像, 北魏 523년

까운 고구려 불상과 연관을 지어서 고구려를 통해서 직접 일본에 전해진 양식인지, 아니면 고구려 양식을 수용한 백제양식과 관련된 것인지 등의 논의가 있다.⁵

그러나 일본 飛鳥時代の 불교는 百濟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전하였고, 또한 실제적으로 아스카시대 불상 중에는 백제 불상과 연관이 깊은 寶珠를 들고 있는 보살상이나 반가사유상이 유행하고 있는 점, 또는 이외에도 본존상의 착의 법이나 광배 의장 등이 역시 백제불상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백제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⁶ 그러나 이 문제는 백제의 6세기 불상의 예가 그리 많지 않아서 더 이상의 활발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비록 많은 예가 전하는 것은 아니나 古樣式을 띠는 백제 6세기 불상들에 대한 재검

⁵ 松原三郎, 「飛鳥白鳳佛と朝鮮三國期の佛像—飛鳥白鳳佛原流考として—」, 『美術史』 68(1968. 3), pp.144-163; 水野敬三郎, 「釋迦三尊と止利佛師」, 『法隆寺金堂釋迦三尊』(岩波書店, 1979), pp.1-17; 姜友邦, 「金銅日月飾三山冠思惟像—東魏樣式계열의 6세기 高句麗, 百濟, 古新羅의 佛像彫刻 樣式과 日本止利樣式の 新解釋—」, 『美術資料』 30, 31(1982. 6, 12) [『圓隆과 調和』(悅話堂, 1990), pp.55-100에 재수록] 강우방의 논문은 國寶 78號 半跏思惟像을 高句麗의 東魏樣式 계열의 불상으로 추정하고, 이 불상의 양식이 일본의 止利樣式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양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⁶ 松原三郎, 「中國佛像樣式の南北—その試論として—」, 『美術史』 59(1965)는 飛鳥 金銅佛에 보이는 강한 北朝 樣式은 고구려와 연관된다고 하면서도, 南朝와 관련된 백제불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金理那, 「三國時代의 奉持寶珠形 菩薩立像 研究—百濟와 日本의 像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37(1985. 12)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88), pp.85-143에 재수록]은 백제의 捧珠菩薩像은 일본의 飛鳥時代 捧珠菩薩像과 연결되고, 그 원류는 중국의 梁代 불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大西修也, 「釋迦三尊像の源流」, 『法隆寺から藥師寺へ』 日本美術全集 2(講談社, 1990) [『日韓古代彫刻史論』(中國書店, 2002), pp.381-402에 재수록]은 止利의 出自라든가 釋迦三尊像의 형식, 光背 등 세부적인 부분들이 모두 百濟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止利樣式에 보이는 古樣式은 南朝인 梁代 불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金春實, 「三國時代 施無畏·與願印 如來坐像考」, 『미술사연구』 4(1990)은 일본 止利樣式 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 양식 형성에는 百濟 如來坐像 양식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吉村怜, 「日本早期佛教像における梁·百濟樣式の影響」, 『佛教藝術』 201(1992. 4)은 龍門樣式이 南朝 미술의 영향으로 성립된 것이라는 설을 더욱 진전시켜 止利樣式の 원류도 南朝 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백제의 6세기 불상들을 살펴보면, 크게 古樣式을 반영하는 一光三尊佛 계통의 상들과 가담리출토 금동여래입상 이후의 보다 新樣式을 반영하는 상들로 나누어진다. 고양식의 일광삼존불 계통의 상으로는 서산 普願寺址 出土의 금동불입상이나 금동일광삼존불의 광배편에 붙은 보살입상, 定林寺址 出土 납석제삼존불상, 鄭智遠銘 금동삼존불상, 군수리사지출토 금동보살입상과 선정인 여래좌상, 신리출토 금동불상 3구, 그리고 파편으로 전하는 납석제 불상편 등이 있다. 이 상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6세기 전반 양식, 소위 북위 후기 내지는 동위 양식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부드럽고 정적인 분위기도 드러내고 있어서 백제 나름의 조형미를 형성하고 있다.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여래입상은 北魏式 着衣法을 하고 있고, 보살상은 밑이 뾰족한 굽은 목걸이와 X형 天衣를 입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감을 전혀 볼 수 없는 佛身, 몸 옆으로 뻗친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표현 등이 고구려의 6세기 불상들과 공통적인 양식을 보이거나 군수리출토 석조여래좌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밝은 미소와 정돈된 옷주름, 그리고 보살상의 봉보주형식 등은 백제 불상만의 특징이다.

新樣式을 반영하는 상은 가담리출토 금동여래입상 이후의 예산사면석불이나 태안마애삼존불상 등의 6세기말 불상들인데, 이 상들은 삼국의 다른 나라 불상들과 달리 南朝인 梁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찍부터 佛身의 표현과 着衣法 면에서 새로운 인도풍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고, 또는 이후 北齊, 周代의 불상양식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들이다.⁷ 즉 이 몸의 양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의 자락도 뻗침이 없이 몸 옆으로 붙어서 길게 늘어지고 있다. 또한 大衣의 着衣法 면에서는 당시 새롭게 전해진 대의를 왼쪽 어깨 뒤로 넘기는 인도풍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전하는 백제계 불상들도 6세기의 고양식을 반영하는 상들보다는 이 신양식의 가담리여래입상이나 예산사면석불상과 연결되는 상들이 다수여서 止利樣式에 미친 백제불상의 영향 문제를 소극적으로밖에 언급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에 백제의 6세기의 古樣式 불상들 중에서 특히 그동안 파편으로 전하여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부여출토의 납석제 불상들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 납석상들은 6세기의 고양식의 상들 중에서는 다소 늦은 시기의 상으로 특히 止利樣式 불상과 형식이나 양식 면에서 매우 깊은 연관을 보여준다. 이에 이 납석제 불상들의 양식 고찰을 중심으로 止利樣式的

7 김춘실, 「三國時代 如來立像樣式的 展開 —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美術資料』 55(1995. 6).

성립에 미친 백제 불상의 영향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납석제 불상의 예

납석제 불상들은 모두 부소산을 중심으로 한 부여의 시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비교적 온전한 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들을 도상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부여 定林寺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
- ② 부여 군수리출토 납석제여래좌상
- ③ 부여 구아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片
- ④ 부여 동남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상반신 片(所在 不明)
- ⑤ 부여 금성산 朝王寺址出土 납석제보살입상 하반신 片
- ⑥ 黃壽永所藏 전부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하반신 片
- ⑦ 부여 부소산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 하반신 片
- ⑧ 전부여 구교육구청 인근 출토 납석제삼존불상 片(所在 不明)⁸
- ⑨ 전부여 구교리 鄉校밭 寺址 출토 납석제여래입상 片(所在 不明)⁹

1. 一光三尊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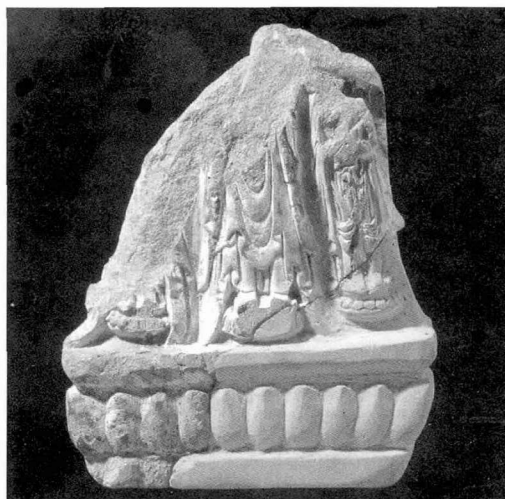
납석제 일광삼존불상은 定林寺址出土 삼존불상과 구교육구청 인근에서 출토되어 현재 所在 不明인 삼존불상편이 있다. 정림사지출토 삼존상은 본존상이 立佛인 삼존상이고 구교육구청 인근 출토상은 본존이 坐佛인 삼존상으로, 백제에서 두 가지 형식의 일광삼존상이 모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이곳에서는 현존하는 정림사지출토 삼존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定林寺址出土 삼존불상은 납석제 보살상편들이 대체로 단독상으로 조성된 것에 비한다면 古式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존의 상반부와 右脇侍菩薩像, 그리고 대좌의 일부

⁸ 黃壽永, 「百濟 石製小像斷片(其1)」, 『考古美術』 3권 7호(통권 24, 1962. 7)

⁹ 黃壽永, 「百濟 石製小像斷片(其2)」, 『考古美術』 3권 8호(통권 25, 1962. 8)

가 파손되었으나 전체 모습은 가늠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6세기의 일반적인 금동삼존불상들과 달리 밑에 다시 삼존을 받치는 넓은 대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는 山東省 龍興寺址出土 北魏 永安2年(529)銘 石造三尊像 같은 상에서 볼 수 있다.¹⁰ 그러나 仰蓮의 單瓣 蓮華坐양식은 중국의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삼국시대 불상적인 특징이다. 정림사지출토 삼존불상의 광배는 바깥 테두리가 舟形光背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본존상과 협시보살상 사이의 공간에서는 광배의 문양은 볼 수 없고, 협시보살의 크기가 본존상에 비해서 그리 작지 않아서 삼존상은 아마도 각각의 두광과 대좌를 가진 獨尊의 형태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도5 부여 定林寺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 6세기 중반, 국립부여박물관

本尊像은 허리 윗부분이 깨져 있지만 아래의 대의의 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부피감 있게 늘어지고 좌우 뺨침이 심한 것으로 보아서 착의 형식은 대의를 왼쪽 팔뚝 위로 넘기는 소위 北魏式으로 추정된다. 左脇侍菩薩像은 손의 위치로 보아 捧寶珠像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측면을 보면 역시 옷자락이 상당히 옆으로 뺨치고 있어서 이 정림사지출토 삼존상이 납석제 불상들 중에서는 가장 고식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봉보주보살상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불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미 백제 불상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塑造로 된 대형의 봉보주보살상의 손부분도 함께 출토된 바 있다²². 조성 시기는 정림사의 창건 시기와 같은 부여 천도(538년) 직후인 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된다.¹¹

이와 같이 정림사지출토 삼존상의 옷주름 표현은 초기 상이어서 다소 부피감이 있지만 몸 옆으로 뺨치는 옷자락은 납작하게 여러 겹 중첩되어서 예각이 서 있는데, 그러한 조각수법은 뒤에서 살펴볼 납석제 보살상편의 옷주름 양식과 같다.

¹⁰ 青州市博物館, 『青州龍興寺佛教造像藝術』(山東美術出版社, 1999), 圖1 참조.

¹¹ 尹武炳, 『定林寺一定林寺址發掘調查報告書』(충남대학교박물관, 1981).



도 6 부여 군수리출토 납석제여래좌상,
6세기 중반

2. 如來坐像

부여 군수리출토 납석제여래좌상 1점이 전하며, 이 상은 보다 부드러운 재질인 滑石製의 상이다 도6. 삼국시대 초기 여래좌상형인 禪定印의 여래좌상으로 대의 앞자락이 둥글게 늘어져 속에 내의가 보이고, 대좌는 좌우대칭형 주름의 상현좌를 이루고 있는데, 지주 東魏 불상인 天平2年(535)銘 石造如來坐像 등과 비교된다. 그러나 미소 짓는 둥근 얼굴모습이나 부드럽고 정제된 옷주름 표현 등은 이미 전형적인 백제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南齊 永明元年(483)銘 石造如來坐像 같은 南朝의 불상과 비교되기도 한다.

조성 시기는 선정인을 취한 고식 형식과 더불어 아직도 옷자락이 두텁게 조각된 편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정림사지출토 삼존상에 이어서 조성된 상으로 추정된다. 함께 출토된 군수리출토 금동보살입상도 佛身이 드러나지 않는 두터운 천의와 치마의 표현, 초기 형태의 三花冠 寶冠, 그리고 하트형 持物 등의 고식 표현을 보인다.

3. 菩薩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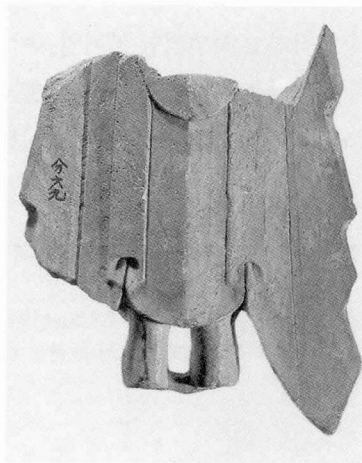
현존하는 납석제 불상 중에는 보살상 편이 가장 많은데, 부여 구아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片 도7, 부여 동남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片(소재불명) 도8, 부여 금성산 朝王寺址出土 납석제보살입상 片 도9, 황수영소장 전부여출토 납석제보살입상 片 등이다 도10. 구아리출토 보살상편과 동남리출토 보살상편은 보살상의 上半身 片이고, 금성산 조왕사지출토 상과 황수영소장 보살입상 片은 보살상의 下半身 片이다. 대체로 소형의 편들이지만 금성산 朝王寺址 출토 보살상 하반신 片은 현존 크기가 14.3cm에 달해, 복원해 보면 비교적 큰 상도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파손된 상이고 머리 부분은 없지만 상체와 하체 부분이 전하여서 대체적인 전체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다.



도 7 부여 구아리출토
남석제보살입상 편,
6세기 후반,
국립부여박물관



도 8 부여 동남리출토 남석제보살입상 편, 6세기 후반, 소재불명



도 9 부여 금성산 朝王寺址出土 남석제보살입상 편, 6세기 후반, 국립부여박물관



도 10 부여출토 남석제보살
입상 편, 6세기 후반,
황수영소장

이 상들의 조각양식을 살펴보면, 먼저 일광삼존불의 협시보살상 편이 아니라 모두 단독 상으로 조성된 상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보살상의 형식은 전형적인 6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서, 목에 가운데가 뾰족한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고 내의를 사선으로 걸쳐고 있다. 어깨에 좌우대칭적으로 늘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먼저 머리카락이 고사리 형으로 늘어지고, 다음 어깨의 둥근 장식에서 늘어진 띠가 접혀서 늘어지고, 다음 어깨를 감싸고 팔에 걸쳐진 天衣가 옆으로 뻗치며 늘어져서 지느러미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치마의 윗단이 배부분으로 둥글게 올라와 있는 것이라든가 천의가 다리 앞에서는 X형으로 교차하고 상의 뒤쪽으로는 둥근 U형을 그리며 길게 늘어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¹²

그리고 手印은 두 손이 배 앞으로 모여진 형태로 보아 일반적으로 봉보주보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직접 배에 대었던 흔적이 없고 손이 잘린 각도 등으로 보아서 완전히 아래위로 포개서 둥근 보주를 들었던 수인이 아니고 양손에 작은 보주를 들었던 형식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¹³

특히 조각양식이 매우 독특한데 전반적인 조각의 편평함 가운데서도 상반신의 몸 측면과 팔 사이의 공간을 깊이 파서 불신의 둥근 맛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뒷모습을 보면 팔과 몸통의 둥근 곡선이 현저하다. 그러나 어깨를 덮고 양팔에 걸쳐져서 늘어지고 있는 천의 등 옷자락은 두드러지게 부피감 없이 납작하고 마치 여러 겹의 띠가 겹쳐져서 늘어지고 있는 듯하다. 치마의 주름과 다리의 윤곽은 음각선 내지는 얇고 납작한 층단의 면으로 그리고 부피감은 가운데에 능선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천의와 치마 등 옷주름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형태는 매우 평면적이고 납작하며 끝단이 예리하게 옆으로 뻗치고 있다.

따라서 몸에 입체감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북위 불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그보다는 다소 시대가 내려가는 梁樣式 내지는 東魏樣式 불상과 연관을 보이며 특히 납석이라고 하는 재질에서 오는 옷주름의 납작하고 평면적인 조각양식이 특징이다. 따라서 납석제 보살상들의 조성 시기는 정림사지출토 삼존불상이나 군수리출토 금동보살입상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이로 보건대 납석제 불상들은 짧은 시기에 일시적으로만

¹²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pp.95-101. 백제의 捧寶珠菩薩像의 예로서 이 납석제보살상들에 대해 상세한 양식 고찰을 하고 있다.

¹³ 大西修也, 「寶珠奉持菩薩の成立過程について」, 『日韓古代彫刻史論』(中國書店, 2002), pp.171-189. 일본 法起寺 銅造菩薩立像을 비교 예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捧寶珠 形式이 두 손을 배 앞에서 포개서 寶珠를 드는 형식보다 이른 형식으로 보고 있다.

조성된 것이 아니라 6세기 중반경에서 후반경에 걸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유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납석제 보살상의 독특한 형식과 조각양식은 특히 다음에 비교할 일본의 범룡사 석가삼존불상의 보살상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아서 각별히 주목된다.

4. 半跏思惟像

부여 부소산출토 반가사유상 片이 대표적인 예이고도11, 부여박물관에는 이외에도 반가상의 하반신으로 추정되는 파손이 심한 편이 2점 정도 더 있다. 부소산출토 반가상은 반가상의 허리 아래부분 편으로 재질이 滑石製이고, 조각양식은 앞에서 살펴본 군수리출토 여래좌상과 흡사하여 옷주름이 두툽한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유연한 선을 보여준다.

대좌에 옷자락이 길게 덮여 있고, 반가한 다리와 손은 세장한 편으로 입체감이 없다. 대좌를 덮은 옷자락은 긴 U형의 주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좌의 형태가 타원형이어서 부피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진다. 대좌 양옆으로는 허리에서 늘어진 긴 띠장식이 작은 고리에 매듭지어져 늘여지고 있다. 이 반가상의 조성 시기는 앞에서 고찰한 납석제보살상들보다는 다소 고식의 상이고 군수리출토 여래좌상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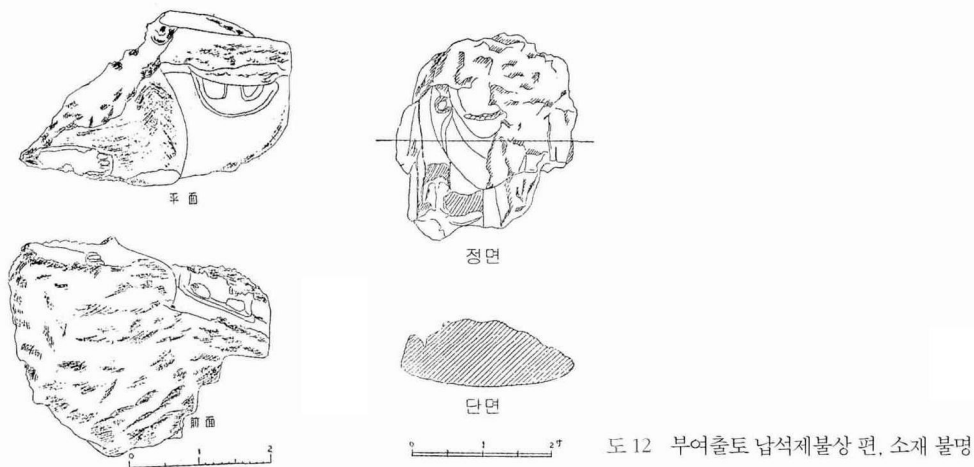
부여박물관에 있는 또 다른 반가상 片은 입자가 다소 거친 납석제 상으로 대좌의 옆면과 뒷면의 일부 옷주름만 보여준다. 옷주름은 긴 U형의 주름이 겹쳐진 형식이어서 부소산출토 반가상의 주름과 거의 흡사하다.

5. 현존하지는 않고 『考古美術』에서 圖面만 확인되는 상

이 상들은 황수영선생님에 의해 수집되어 『考古美術』에 소개되었던 상들이나 현재 소재가 불명이다도12. 구교육구청 인근 출토 석조삼존불상 片은 크기가 폭 11.5cm, 높이 8cm로, 설명에 의하면 본존이 결가부좌한 坐佛로 다리의 등근 선과 발바닥이 남아 있고 옆으로 左脇侍菩薩의 발이 부분만 남아 있어서 본존이 좌불인 소형의 일광삼존상이었음을 알 수 있



도 11 부여 부소산성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 편,
6세기 중반, 국립부여박물관



다. 구교리 鄉校발 寺址 출토 석조여래입상片은 크기가 고 9cm, 폭 8cm, 두께 3cm로 여래입상의 배부분 편이다. 전체 모습으로 보건대 앞에서 고찰한 6세기 후반경의 납석제 상들과 같은 시기의 상들로 생각된다.

이들 예를 통해 보면, 납석제 상의 도상에는 본존을 좌불로 하는 일광삼존상과 독존의 여래입상 등도 포함되어서 다양한 형식의 상이 조성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기타

그 밖에 시대가 내려가는 납석제 상으로는 전 경주출토 납석제 佛菩薩并立像과 충남 연기군출토 碑像들이 있다. 특히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은 舟形光背에 본존이 裳懸座에 앉은 坐佛인 群像形式의 상으로, 백제 조각의 전통이 통일신라 초기까지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¹⁴ 그러나 이 상은 본존의 수인이나 양식 면에서 이미 새로운 통일신라 양식이 반영되고 있는 후기 상이어서, 직접 범룡사 석가삼존불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¹⁴ 광동석, 「燕岐지방의 佛碑像」, 『百濟의 彫刻과 美術』(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 1992), pp.173-210.

Ⅲ. 납석제 불상의 양식 특징과 三國時代 初期石佛의 문제

이상으로 백제 납석제 불상들을 도상별로 나누어 그 형식과 양식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납석제 불상들의 전체 조각양식상 특징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납석제 불상들은 부여로 천도한 이후 6세기 중엽경부터 정립사지출토 삼존불상을 이른 시기의 상으로 해서 조성되기 시작하여 주로 6세기 말경까지 유행한 독특한 불상의 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정 복원치로 보건대 전체 크기가 30cm 미만의 소형의 예들이 다수이지만, 금성산 조왕사지출토 보살상의 하반신 편처럼 40cm 이상의 다소 큰 상도만 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형식을 보면 一光三尊佛像 또는 單獨像으로 조성되었는데, 일광삼존불이 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형식이고 단독상은 그 뒤를 이어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광삼존불상의 경우는 본존상이 입상인 것과 좌상인 것이 모두 조성되었고, 단독상의 경우는 여래입상, 여래좌상, 보살상, 반가사유상 등이 있어서 6세기에 小金銅佛로 유행되었던 모든 불상의 형식이 망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납석제 불상은 당시 소금동불과 같은 용도의 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편 납석상이 출토된 정립사지, 구아리사지 등과 또는 6세기의 다른 백제의 寺址인 능산리사지 등에서는 다수의 소조상 편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이 두 재질의 상들을 도상면에서 비교해 보면 납석제 상들이 모두 佛, 菩薩像임에 비해서, 소조상 편들은 불·보살상도 있지만 그 밖의 天部像, 僧侶像, 그리고 다양한 복식의 인물상 등이 포함되고 있어서 재질에 따라 그 용도, 즉 도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납석상들의 조각양식상 특징을 살펴보면, 보다 고식인 정립사지출토 삼존불상과 부소산출토 반가사유상, 그리고 군수리출토 여래좌상 등은 佛身에 양감이 없고 옷자락이 두터운 특징을 보인다. 이들 중 군수리출토 여래좌상이나 부소산출토 반가사유상은 재질이 부드러운 활석제여서 조각양식이 보다 부드럽고 정적인 특징을 보인다. 다음 단독상인 보살상들은 보다 양식의 진전을 보여서 상반신에는 일부 둥근 맛이 표현되지만 옷주름은 음각선이나 얇은 층단의 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부여출토 납석제 불상들의 조각양식은 6세기라는 시대양식과 더불어 납석이라고 하는 재질에서 오는 특징으로, 좌우대칭성이 강하고 불신은 평면적인 성향이 있으며 몸 옆으로 날카롭게 뻗치는 옷자락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식은 북위나 동위 등 6세기 북조의 불상양식과 연관되는 점도 있지만, 봉보주형이 다수인



도 13 四川省 萬佛寺址出土 梁普通4年銘 石造碑像,
梁 523년



도 14 山東省 龍興寺址出土
석조보살입상, 北魏 6세기 전반

보살상의 형식이나 정적이고 세련된 조형성 등은 보다 남조인 梁代 불상양식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납석제 불상들의 독특한 형식과 조각양식은 다음에 비교할 일본의 飛鳥時代 止利樣式 불상들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아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독특한 재질과 양식의 상들이 당시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의 6세기 砂巖製 石像들을 주목하고 그 양식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식과 도상 면에서 관련이 깊은 四川省萬佛寺址出土 梁普通4年(523)銘 石造碑像이나 梁中大同3年(548)銘 石造碑像 등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도13}. 이 梁代 碑像의 불·보살상들은 북위의 불상들과 공통된 전통적인 漢化樣式을 반영하여서 전형적인 北魏式 着衣法和 옷자락의 좌우 뻗침이 심하지만, 이미 새로운 인도풍의 영향도 반영되어서 얼굴과 불신에는 양감이 반영되어 있고 뻗친 옷자락은 납작하고 도식적이다. 이러한 조각수법은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은 또 山東省 靑州 龍興寺址에서 출토된 北魏-東魏代作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砂巖製 石造佛像들과도 비교되는데, 이 石像들은 기본적으로 북위양식 계통의 상들이지만 산동성 특유의 양식의 선진성을 반영하고 있다^{도14}. 이 상들은 모두 사암제의 상으로 조각양식상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전형적인 북위의 석조상들과 달리 몸에는 양감을 드러

내면서도 옷주름은 얇은 선각과 납작한 면으로 구성되어 뻗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옷주름의 조각수법 역시 백제 납석제 불상의 옷주름 조각수법과 일치함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은 남북조시대 불상 중에서 보다 이르게 漢化樣式이 해체되고 있는 지역인 사천성이나 산둥성 지역의 사암제 석상들과 양식의 유사함을 보이는데,¹⁵ 이는 백제 불상양식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둥성 출토의 일광삼존불상의 광배에는 위나 아래 부분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이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일광삼존불상의 광배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그리고 납석제 보살상이 捧寶



도 15 전황주출토 납석제여래좌상, 고구려 6세기

珠像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四川省의 碑像들이 도상면에서 보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백제의 6세기 납석제 불상들이 양식면에서 中國의 石像인 사암제 불상들과 연관을 보이는 점은 삼국시대에 石佛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점이다. 즉 이들 납석상들은 중국의 6세기 석상들을 백제 나름으로 해석한 초기의 상들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백제에서는 이들 소형의 납석상에 이어 6세기 말에는 대형의 납석제 불상인 예산사면석불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어서 화강암제의 석불인 태안이나 서산의 마애불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세기 후반의 소형 납석제 불상들은 백제 석불의 초기 형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을 대표하는 화강암제 석불은 중국의 사암제 불상의 초기 수용의 예인 납석제 불상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후 한국적으로 완전히 정착한 불상의 형태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도 납석상이 1점 알려지고 있는데, 傳黃州出土 如來坐像으로 『朝鮮古文化綜鑑』 제4권 고구려편에 사진으로 전하는 상이다¹⁵. 이 상은 선정인의 단독 여래좌상으로 뒷면에 광배의 편이 보이고, 넓은 방형대좌의 앞면으로 대의가 흘러내리고 있다. 대의도 가슴이 깊게 벌어져 속에 내의가 보이는 등 기본적으로 북위양식을 보이나, 대의의 주름이 보다 단순하게 정돈되었으며 부드러운 몸의 양감도 일부 보이고 있어서 6세기 중반 이후의 상으로 생각된다. 이 상과 비교되는 중국의 예는 산둥성 지역의 불상에서 찾아지는

¹⁵ 김춘실,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美術史論壇』 19(2004 하반기).

¹⁶ 姜友邦, 「三國時代佛教彫刻論」, 『三國時代佛教彫刻』 특별전 도록(국립중앙박물관, 1990), pp.139-151.

데, 黃石崖石窟이나 1988년 諸城出土의 禪定印 石造如來坐像 등으로 고구려와 산둥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¹⁷

이로 보면 고구려의 경우도 6세기 후반경에는 초기 형태의 石佛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외에 다른 예가 없고 또 이어지는 확실한 고구려의 화강암제 석불이 전하지 않는다. 단지 소속국가가 다소 不明한 청원 비중리의 석조삼존불상과 중원 가금면의 마애불상이 있지만, 이들은 수도인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상들이므로 고구려의 경우는 아직 석불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소조상의 경우는 평양 원오리 사지 소조상이나 토성리사지출토 불범 등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조성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석불의 조성과 맥을 같이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石塔의 조성도 현존의 자료로는 백제의 예가 많아서, 따라서 삼국시대 화강암제 석조미술의 창안에는 백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새로 발견된 百濟 6세기 불상

근래에 부여에서는 다양한 발굴사업이 이어졌고, 이들 유적지에서는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1993년 金銅香爐와 昌王13年(567)銘이 있는 石造舍利龕이 출토된 능산리사지와 1982년 이래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泗泚期 王宮推定地인 관북리유적 등은 대표적 유적지이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또한 6세기로 추정되는 불상들도 여러 점 발견되고 있으므로, 납석제 불상을 포함한 백제 6세기의 불상양식의 이해를 위하여 이를 소개해 보고자 있다.

새로 발견된 불상들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부여 관북리출토 金銅光背이다¹⁶. 이 광배는 2003년 제9차 발굴시 출토되었고, 이후 흙과 녹을 제거하는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2004년 제10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되었다. 광배의 크기는 고 11.9cm로 무엇보다 外緣의 6곳에 飛天을 붙였던 方形 結構孔이 붙은 모습이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나라 광배 중에서는 처음 보는 예이다. 단독상의 광배인 듯 좌우 협시불이 없고 본존상을 결구했던 구멍만이 아래위로 2군데 있다. 頭光의 중심부는 동심원과 13엽의 單瓣 연화문만으로

¹⁷ 金春寶,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도 10.

장식하고 있으며, 身光部는 아래가 좁은 것이 특징이고 또한 아무런 장식 없이 굽은 외곽선 안에 평행선 3줄만 두르고 있다. 이러한 광배 형태는 일본 根津美術館所藏의 北魏 普泰2年(532)銘 金銅光背가 가장 잘 비교되는 예이나, 이 광배에는 左右의 脇侍 菩薩像과 火焰光 속에 3구의 化佛이 부조되어 있다.

火焰部는 위로 상승하는 화염의 운곽을 굽직하게 浮彫하고 그 안을 가는 線刻으로 장식하고 있다. 삼국시대 대부분의 광배의 경우 화염은 밀집된 線刻의 소용돌이형이 대다수인데 반해서, 이러한 화염 장식은 기메박물관소장의 熙平3年(518)銘 二佛坐像이나 일본 藤井有鄰館所藏 正光3年(522)銘 三尊佛像의 광배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 北魏 6세기 초에 유행한 이른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광배의 제작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데, 아무튼 백제 초기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언급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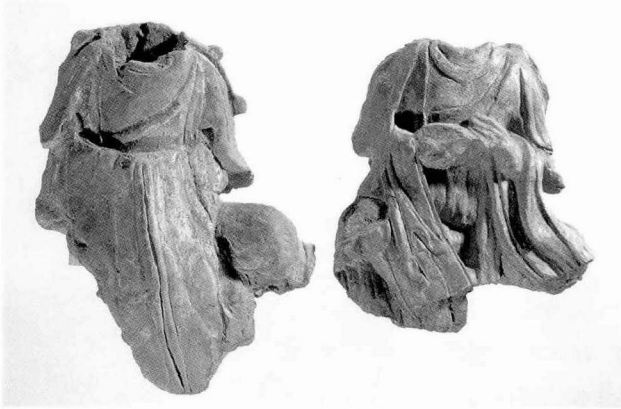
도 16 부여 관북리출토 금동광배, 6세기 전반

다음은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불상들로 塑造佛像 4점, 소형 金銅板佛 1점, 그리고 대형 金銅光背의 깨진 片 등이 있다.¹⁸ 능산리사지는 金銅香爐와 木塔址에서 昌王13年銘 石製 舍利龕(威德王代, 567년)이 발견되어서 당시의 중요한 왕실 발원 사찰이었고, 또한 절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찰이다. 이들 중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4차 조사시 목탑지 심초석 근처에서 발견된 塑造佛像들로, 菩薩像片이 2점, 僧形 머리 1점, 人物像 머리 1점 등이 있다. 이들 塑造像들은 定林寺址出土 塑造像들뿐 아니라 北魏의 洛陽 永寧寺址出土 塑造像들과의 관련성이 이미 지적되었던 바인데,¹⁹ 정림사지출토 소조상들이 주로 일반 人物像인데 비해서 능산리사지 소조상들은 대부분 佛像 片인 점이 다소 다른 점이다.

이들 중 특히 보살상 편은 앞에서 살펴본 부여출토 납석제 보살상 편과 양식적으로 관련

¹⁸ 國立扶餘博物館, 『陵寺-扶餘 陵山里寺址發掘調査 進展報告書』(2000), 本文編 pp.124-134. 圖板編 131, 200, 206, 207.

¹⁹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發掘報告(1998).



도 17 부여 능산리사지출토 소조보살좌상, 6세기 후반, 국립부여박물관



도 18 四川省 萬佛寺址出土 梁大同3年銘 석조여래입상, 梁 537년

을 보여서 주목된다^{도17}. 이 보살상 2점은 모두 좌상인데 머리 부분이 없고 손모습만 다를 뿐 거의 같은 형태이다. 목에는 가운데가 뾰족한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가슴에 사선의 내의 선이 보이고, 어깨에는 돌기형태로 표현된 보발, 그리고 천의와 어깨끈 장식 등이 차례로 늘어져 덮고 있어서 6세기 후반의 보살상 양식을 보인다. 단지 팔에 감겨 늘어지는 천의가 마치 바람에 날리듯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낙양 永寧寺址出土 人物像 같은 중국 소조상들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⁰ 그러나 불상에서 이러한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南朝佛像인 사천성 萬佛寺址出土 梁大同3年(537)銘 石造如來立像이나 일본 關山神社에서 전하는 백제의 금동보살입상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도18}. 수인은 1구는 두 손을 배 앞에서 약간 엇갈리게 들어서 그 안에 옆으로 긴 둥근 지물을 들은 듯 보이고, 또 1구는 두 손에 긴 천에 덮여 있다. 함께 출토된 창왕13년명 사리감(567년, 위덕왕대)은 이들 불상들이 대체로 6세기 중엽에 가까운 후반의 상임을 알려준다.

金銅板佛 역시 목탑지 심초석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打出技法으로 불상을 새긴 것이다^{도19}. 이미 많이 파손된 상태이지만 원래의 모습은 一光三尊佛을 중심으로 한 판불로 짐작된다. 네모난 형태의 銅版 가운데에 舟形光背를 중심으로 불·보살상이 배치되어 있고 광

²⁰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魏洛陽永寧寺』彩圖, 21-23 참조.



도 19 부여 능산리사지출토 금동판불,
6세기 후반, 국립부여박물관



도 20 부여 쌍북리출토 금동보살입상,
7세기 전반

배 윗면과 옆으로는 天蓋와 龍이 장식되어 있다. 본존상과 우협시보살상은 없어졌고 좌협시보살상이 남아 있는데, 귀 옆으로 관띠 같은 것이 늘어져 있고 통통한 얼굴의 미소 짓는 표정이 옛되다. 天衣는 U형으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고 치마의 폭이 옆으로 넓게 벌어져 있다. 현재 그 옆으로 같은 형태의 치마를 입은 보살상의 하반신이 이어서 복원되어 있는데 그 형태로 보아 원래 우협시 쪽의 보살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주문으로 장식된 주형광배의 형태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광배와 흡사하다. 조성 시기는 보살상의 관띠의 형태나 폭이 넓은 치마의 표현, 그리고 天蓋나 龍의 초기적 표현 등으로 보아, 역시 6세기 후반에서 말경의 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공방지 부근에서는 대형 金銅光背의 파손된 편들이 수습되었는데, 당초문의 불륨감 있고 율동적인 표현으로 보건대 조성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 법륜사 금당 석가삼존상에 비견되는 대형의 금동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최근에 부여 쌍북리에서도 높이 5.2cm의 작은 금동보살입상이 1구 출토되었는데, 머리 부분만 결실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완전한 상이다^{도 20}. 대좌는 一鑄되어 남아 있고, 광배는 등 뒤에 부착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머리에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佛身의 양감과 자연스러운 자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한 천의도 옆으로 뻗치지

얇고 몸에서 약간 떨어져서 길게 늘어지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조성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의 뒷부분을 보면 천의가 양 어깨에 마치 넓은 술을 걸친 듯 덮여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도 7세기 보살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手印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비교적 큰 둥근 형태의 지물을 양손에 각기 맞들어서 잡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지물이다. 이와 같은 지물과 수인은 백제 보살상에서 유행한 捧寶珠形 手印의 한 변형임은 분명한데, 이와 같이 지물의 형태가 비교적 확실하게 표현된 예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일부 납석제 보살상이나 능산리 사지출토 소조보살상의 수인 형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손부분이 파손되어 그 형태를 뚜렷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쌍북리출토 금동보살입상은 백제 보살상의 수인 및 지물의 고찰에 매우 중요한 예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1988년 부소산성 발굴조사 때에 발견된 원형의 금동광배가 있는데, 특히 金色이 좋고 투조 기법이 뛰어나며 조성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래 부여지역에서는 다양한 발굴을 통해서 그 예가 드물었던 6세기로 올라가는 불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6세기 불상들 중에서 이른 시기의 상은 北朝와의 관련을 보이는 예도 포함되고 있으나, 6세기 중엽 이후는 보살상의 착의 형식이나 옷주름의 표현, 그리고 봉보주형의 수인 등에서 南朝와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 백제 특유의 다양한 표현이 압도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에 알려진 백제의 6세기 불상들과 납석제 불상, 그리고 새로 발견된 6세기 불상들을 망라하여, 이 시기 불상양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머리말에서는 백제의 6세기 불상들이 크게 古樣式을 반영하는 一光三尊佛 계통의 상들과 가탐리출토 금동여래입상 이후의 보다 新樣式을 반영하는 상들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납석제 불상들의 양식 고찰을 통해서 보면, 고양식의 상들은 다시 2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좀더 北魏後期 樣式에 가까운 1단계 양식의 상들로는 관북리출토 광배나 서산 普願寺址出土의 금동불입상, 금동일광삼존불의 광배편에 붙은 보살입상 定林寺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 부소산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 등이 있고, 그 다음 梁樣式 내지는 東魏樣式에 가까운 2단계 양식의 상들로는 군수리사지출토 금동보살입상과 선정인 여래좌상, 신리출토 금동불상 3구, 그리고 파편으로 전하는 납석제 불상편, 능산리사지출토 소조보살상, 소형관불 등이 있다. 그리고 6세기 말경의 가탐리출토 금동여래입상 이후의 예산사면석불이나 태안마애삼존불상 등의 新樣式 상들이 3단계 양식의 상들이다. 따라서 기존에 막연히 하나로 묶어서 생각되었던 백제의 6세기 불상양식은 크게 6세기 전반, 후반, 그리고 말경의 3단계로 변화,

전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V. 日本 飛鳥時代 止利樣式 불상과의 비교

일본 飛鳥時代 止利樣式的 원류 문제는 그동안 如來坐像, 如來立像, 菩薩立像, 半跏思惟像, 또는 光背 등 여러 도상의 상을 形式과 樣式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방향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여래좌상은 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 여래립상은 施無畏 與願印 如來立像을 중심으로, 보살립상은 捧寶珠菩薩立像을 중심으로, 반가사유상은 百濟系 半跏像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중국의 北魏나 東魏代 불상, 그리고 한국의 三國時代의 불상들과 비교 고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의 결과 止利樣式은 그 상들이 만들어진 7세기 전반의 일반적인 양식보다 매우 고식인 6세기 양식을 전면적으로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7세기 전반 불상양식의 영향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양식임이 밝혀졌다.

이 복합적 양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들이 조성되었을 당시의 불상양식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전면에 채택된 古式樣式的 원류 문제이다. 止利樣式 불상이 현재 일본의 초기 백제계 불상들보다도 더 古式的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은 머리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 고식양식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正面觀이 강하고 佛身의 양감이 없으며 불·보살의 착의 형식이나 옷자락의 좌우 뻗침 등이 마치 중국의 북위후기 불상을 보는 듯한데, 이는 이 불상들의 조성 시기인 7세기 전반이라는 시기로 볼 때 지나치게 복고적인 양식이다.

이 고식 양식의 원류가 되는 상으로는 이제까지 이 양식과 연관되는 백제의 6세기 불상이 적은 관계로 자주 중국의 北魏後期 또는 東魏代 불상들에서 찾아지거나, 또는 삼국시대 高句麗 불상과 연관지어서 고구려를 통해서 직접 일본에 전해진 양식인지, 아니면 고구려 양식을 수용한 백제양식과 관련된 것인지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²¹ 특히 國寶 78號 半跏思惟像을 高句麗의 6세기 東魏樣式 계통의 불상으로 추정하고, 이 불상의 양식을 일본의 止利樣式과 가장 밀접한 양식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²²

그러나 백제의 납석제 불상을 포함한 6세기 불상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고식

²¹ 주 5, 6 참조.

²² 姜友邦, 「金銅日月飾三山冠思惟像攷—東魏樣式계열의 6세기 高句麗, 百濟, 古新羅의 佛像彫刻 樣式과 日本止利樣式的 新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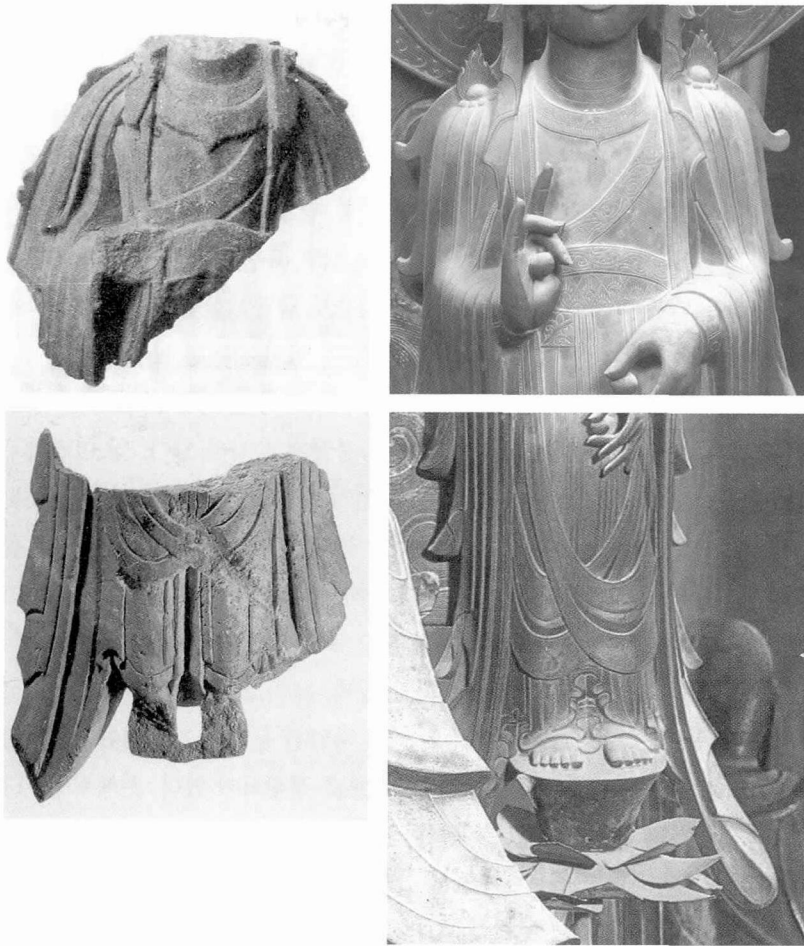
양식은 백제의 6세기 불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특히 납석제 불상을 중심으로 한 6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부여지역에서 조성된 불상들이 도상과 양식 모든 면에서 가장 일본의 도리양식 불상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리양식의 대표적 불상인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佛과 백제의 6세기 납석제 불상들을 중심으로 그 도상과 양식의 관련성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륜사 금당 석가삼존상의 본존상은 施無畏 與願印의 如來坐像인데, 같은 金堂의 藥師 如來坐像이나 戊子年銘 釋迦三尊佛像(628년)의 本尊像 등이 모두 이 형식의 상이어서 止利樣式을 대표하는 불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특히 법륜사 석가삼존상의 본존상은 외형상 가장 전형적인 北魏後期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 도리양식 불상들이 고식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 즉 길쭉하고 근엄한 얼굴 모습, 大衣는 앞이 깊게 벌어져서 속에 내의와 띠매듭이 보이고 대의의 끝자락이 왼쪽 팔뚝 위로 넘겨지는 北魏式의 着衣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좌에는 도식화된 裳懸의 옷자락이 길게 덮여 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의의 착의법이나 대좌에 늘어지고 있는 옷고름의 표현, 그리고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고 있는 대의자락의 표현 등에 전형적인 북위식만이 아니라 후대인 삼국시대 여래좌상의 영향도 함께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³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百濟는 물론 高句麗 불상 중에도 이와 같은 전형적인 北魏式의 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은 전하고 있지 않다. 청원 비중리의 석조삼존상이나 중원 가금면 마애불의 본존상의 경우 그러한 예일 가능성이 있지만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한편 백제의 납석상으로 황수영선생님에 의해 소개되었던 구교육구청 인근 출토의 석조삼존불상片이 이와 같은 양식의 상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소재를 알 수 없고 또한 도면상으로도 파손이 심해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을 통해서도 도리양식에 보이는 구양식이 삼국시대 불상의 영향임을 증명할 자료는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釋迦三尊像의 本尊像 大衣 속에 보이는 옷고름의 형태라든가 대좌에 늘어지고 있는 裳懸 주름의 양식은 다분히 삼국시대 중에서도 백제 불상적인 특징이다. 특히 좌우대

²³ 止利樣式 如來坐像의 복합적 양상은 먼저 大衣의 착의형식 면에서 지적되었는데, 즉 北魏式 着衣法과 좀더 후대적인 착의법인 北魏式이 아닌 着衣法, 예를 들어 법륜사현납보물143호 금동삼존불상의 본존 여래입상이나 백제 서산마애불의 본존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착의법이 어우러져 있는 특이한 착의법을 하고 있는 점이다(水野敬三郎, 「釋迦三尊と止利佛師」). 필자는 止利樣式 如來坐像에 보이는 백제 불상의 영향이 如來立像 등에서 볼 수 있는 착의법만이 아니라, 大衣의 옷고름이나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고 있는 옷주름 등에 보이는 이중적 표현을 지적하여 百濟의 如來坐像 樣式 그 자체일 것임을 지적하였다(金春實, 「三國時代 施無畏·與願印 如來坐像考」).



도 21 부여출토 납석제 보살상과 법륜사 석가삼존상의 협시보살상

칭을 이루며 2단으로 늘어지고 있는裳懸의 둥근 옷주름은 北魏 如來坐像에 보이는 수직으로 겹쳐서 늘어지는裳懸 옷주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백제의 대표적 여래좌상인 군수리 출토 납석제여래좌상이나 충남 청양출토 陶製臺座의裳懸 옷주름과 가장 흡사하다⁶. 따라서 현존하는 삼국시대 古樣式의 如來坐像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법륜사 석가삼존상의 본존상에 미친 백제 불상의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法隆寺 釋迦三尊佛의 兩脇侍菩薩像의 경우는 도상과 양식 모든 면에서 부여출토의 6세기 납석제 보살상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점이 주목된다²¹. 법륜사 석가삼존상의 양 협시보살상은 현재 鍍金된 상태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

소 작달막한 키에 높은 관을 쓰고 있고 두 손은 아래위로 들어서 작은 寶珠를 들었으며, 몸의 좌우로는 寶髮과 天衣가 마치 지느러미처럼 뻗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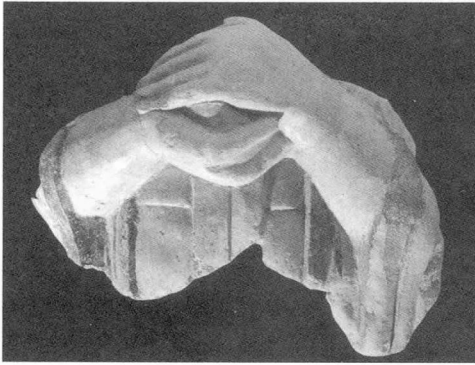
석가삼존상의 협시보살상과 부여출토 납석제 보살상을 비교해 보면, 머리 부분은 현존하는 납석제 보살상의 머리가 모두 깨어진 상태여서 비교할 수 없지만, 몸 부분은 백제의 납석제 보살상과 거의 같은 양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협시보살상의 寶冠의 경우도 가운데가 높은 高冠으로 윗부분에 日月飾이 있고 좌우로 관띠가 길게 늘어진 형태인데, 이와 같은 관은 백제의 6세기 불상인 부여 신리출토 금동보살입상이나 태안마애불의 가운데 봉보주보살상 등에서 볼 수 있는 백제식 寶冠임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²⁴

협시보살상의 착의 형식과 양식을 보면, 가운데가 뾰족한 굽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내의는 사선으로 입고 있고 배에는 치마의 윗단이 둥글게 올라와 있다. 양 어깨로부터 몸의 좌우에는 대칭으로 늘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먼저 머리카락이 고사리 형으로 늘어지고, 다음 어깨의 보주형 장식에서 늘어진 띠가 접혀서 늘어지고, 다음 어깨를 감싸고 팔에 걸쳐진 天衣가 납작하면서도 예리한 형태로 치마 밑까지 길게 뻗치고 있다. 그리고 허리에는 굽은 허리띠를 매고 그 가운데로 폭이 넓은 띠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며, 천의는 다리 앞에서 X형으로 교차되고 있다. 이들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내의, 허리띠, 배위로 둥글게 올라온 치마 윗단 등에는 唐草文이나 斜線文 등의 다양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관띠나 천의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聯珠文 같은 무늬가 線刻으로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각양식은 상반신에 약간 입체감이 표현되고 있으나 하반신은 거의 양감 없이 편평하며 옷주름도 납작한 띠가 겹쳐진 듯 조각되었고 좌우대칭성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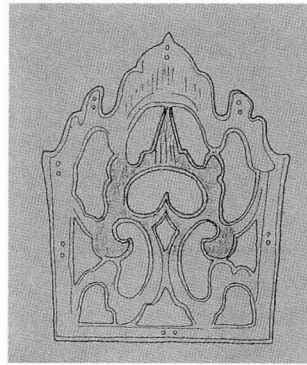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석가삼존상의 협시보살상의 세부형식이나 조각양식은 부여 구아리나 동남리 출토의 납석제 보살상 또는 백제의 6세기 보살상과 매우 밀접한 것이어서 도리양식에 미친 백제불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목걸이나 사선으로 입은 내의, 그리고 배위로 둥글게 올라오는 치마의 윗단, 어깨로부터 차례로 몸의 좌우로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나 천의의 뻗침 등의 세부 형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평하면서도 예리한 조각양식 등이 공통적인 점이다.

이외에도 굽은 허리띠 앞으로 폭이 넓은 띠가 길게 늘어지고 있는 표현은 정림사지출토의 손부분만 남은 塑造 捧寶珠形菩薩像에서 볼 수 있는 것이²², 옷의 가장자리를 장식하

²⁴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p.91.



도 22 부여 定林寺址出土 소조보살상편, 6세기 중반, 국립부여박물관



도 23 부여 능산리고분출토 金銅透彫寶冠金具, 6-7세기, 국립부여박물관(上原和, 『玉蟲廚子』, 삽도 205)

고 있는 당초문양은 백제의 무령왕릉출토 왕과 왕비의 冠飾이나 능산리사지나 부소산출토의 金銅光背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당초문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배를 덮는 옷자락에 보이는 역하트형 위에 平行刻線을 긋는 문양은 부여 능산리고분출토 金銅透彫寶冠金具를 비롯한 백제 유물에 보이는 문양과 관련이 있다^{23, 25} 한편 석가삼존상의 협시보살상은 뒷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같은 도리양식 보살상인 法隆寺 大寶藏殿 菩薩像 등의 뒷모습을 보면 天衣가 둥근 U형을 그리며 허리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도 납석제 보살상들의 뒷모습과 같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백제의 6세기 보살상들의 중요한 공통적 형식상 특징이기도 하다.²⁶ 따라서 석가삼존상의 양 협시보살상을 포함한 止利樣式 菩薩像들은 특히 부여출토의 6세기 납석제 보살상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넓게는 6세기에서 7세기 전반의 백제미술의 영향 속에 있는 상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釋迦三尊佛의 光背는 범룡사현납보물143호 금동삼존불상의 광배나 익산 연동리 石佛坐像의 光背 등과 비교되어 百濟의 6-7세기 光背樣式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음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2, 27} 한편 飛鳥時代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불상 형식인 半跏思惟像의 경

²⁵ 金廷禧, 「玉蟲廚子 本生圖의 佛教繪畫史的 考察 —玉蟲廚子 繪畫와 三國時代 繪畫—」, 『講座 美術史』 16(2001.3), pp.152-157.

²⁶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p.93, 圖 2-52, 53 참조.

²⁷ 大西修也, 『日韓古代彫刻史論』, pp.392-396.



도 24 法隆寺獻納寶物155號
銅造半跏思惟像, 7세기 전반

우도 삼국시대 百濟 半跏思惟像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²⁸ 특히 法隆寺獻納寶物155號 銅造半跏思惟像은 渡來佛로 알려지고 있는 長野 觀松院의 銅造半跏思惟像이나 對馬島 淨林寺의 銅造半跏思惟像과 양식상 관련이 있는 상으로 보고 있으며²⁴, 또 이들 도래불의 반가상들은 다시 부여 부소산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과 연관지어 대체로 백제 계통의 반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6세기 납석제 불상들은 일본의 止利樣式 佛像들과 古式의 양식뿐 아니라 불상의 形式, 즉 一光三尊佛像 형식이라든가, 如來坐像, 如來立像, 捧寶珠菩薩像, 半跏思惟像 등 圖像 면에서도 일치함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일본의 불교수용 초기에 백제로부터 전해진 불상들 중에는 金銅佛뿐 아니라 小形의 蠟石製 佛像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일찍이 藤澤一夫씨가 『日本書紀』에 보이는 '鹿深臣이 百濟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彌勒石像을 부소산출토 납석제 반가사유상에 비견한 연구 결과는 주목되는 바이다.²⁹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止利樣式을 대표하는 일본의 범륜사 석가삼존상이 金銅佛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蠟石像이나 砂巖製石像을 보는 듯 전체적으로 조각이 편평하고 옷주름이 납작한 면과 음각선으로 날카롭게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상의 고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으로 대표되는 止利樣式 佛像들은 그 어떤 불상들보다도 넓게 百濟의 6세기 불상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좁힌다면 蠟石製 佛像들로 대표되는 6세기 중엽경부터 후반의 불상들과 양식 면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불상으로는 기존에 定林寺 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 군수리출토 금동보살입상, 그리고 신리출토 금동불상 등이 알려져 있었으나, 그 양식의 특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납석제 불상

²⁸ 大西修也, 「百濟半跏像の系譜について」, 『佛教藝術』 158(1985).

²⁹ 藤澤一夫, 「鹿深臣百濟將來彌勒石像說」, 『史蹟と美術』 177(1947. 3).

들의 양식 고찰을 통해서 양식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고, 이 백제의 6세기 중반부터 후반의 불상양식이 일본 飛鳥時代 止利樣式에 가장 가까운 양식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식은 北魏나 東魏 등 6세기 北朝의 불상양식과 연관되는 점도 있지만, 捧寶珠形이 다수인 菩薩像의 形式이나 靜의이고 세련된 조형성 등으로 보건대, 보다 南朝인 梁代 불상양식과 깊은 연관을 갖는 양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백제의 이 시기 불상양식이 남조의 梁代 불상과 연관을 갖는다고 해서, 일본의 止利樣式的 원류가 梁代 불상까지 소급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일본의 止利樣式的 佛, 菩薩像들의 세부적인 형식과 양식은 넓게 백제의 6세기 불상양식의 범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석가삼존상의 조성시 止利佛師는 왜 이렇게 古式의 양식으로 釋迦三尊像을 조성하려고 했는지를 당시의 百濟와 日本의 佛教彫刻史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후시 석가삼존상의 조성 시기인 7세기 전반에 백제에서 유행하고 또 일본에 전해진 불상이 法隆寺獻納寶物143號 金銅阿彌陀三尊像 같은 『請觀音經』에 의한 阿彌陀信仰의 佛像들이어서도^{2,30} 法隆寺의 本尊像을 釋迦三尊像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止利佛師는 古式의 釋迦像인 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을 모델로 하여 법륜사의 본존상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초기 불교전래 기사인 『日本書紀』 欽明天皇13年(552)條에 보이는 百濟 聖王이 幡蓋, 經論과 함께 보냈다고 하는 釋迦佛金銅像1軀의 모습이 자못 궁금하고, 이와 같은 상이 바로 止利佛師가 法隆寺의 釋迦三尊像을 만들 때 참고하였던 像은 아닐지 생각되기도 한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日本 飛鳥時代 止利樣式的 원류 문제와 관련하여 百濟의 蠟石製 佛像들을 포함한 백제의 6세기 불상들의 양식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일본의 상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고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은 一光三尊佛과 單獨像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형식으로는 일광삼존불의 경우 本尊像이 立像과 坐像이 있고, 단독상의 경우는 如來坐像, 如來立像, 捧寶珠形 菩薩像, 半跏思惟像 등의 예가 있어서 당시 金銅佛의 도상과 일치함을 보인다. 따라

³⁰ 大西修也, 「百濟佛立像と一光三尊形式」, 『Museum』 315(1977. 6): 『日韓古代彫刻史論』, pp.77-100에 재수록.

서 蠟石像들은 당시 小金銅佛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 면에서는 定林寺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의 예로 보건대 일광삼존불상이 단독상들보다 古式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상들 중에서는 부소산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이나 군수리출토 선정인 여래좌상이 양식적으로 올라가고 봉보주형 보살상들은 양식적으로 약간 내려가는 특징을 보여서 몸에 둥근 맛이 일부 드러나며, 그러나 옷주름은 아직도 편평하고 예리하게 옆으로 뻗치고 있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에서 납석제 불상이 조성되었던 시기는 6세기 중엽부터 말기까지의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납석상들의 양식은 전형적인 北魏樣式 상들과는 몸에 일부 입체감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南朝의 梁樣式 내지는 東魏樣式의 상들과 연관을 보이며 특히 蠟石이라고 하는 재료에서 오는 독특한 조각양식이 특징이다. 한편 6세기 후반경에 유행한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砂巖製佛像들과 관련이 깊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삼국시대 화강암제 石佛이 등장하기 바로 전 단계에 조성된 석상이 이들 납석제 불상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三國時代 石佛의 창안에 이들 백제의 납석상들은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납석제 불상과 근래 새로이 발견된 백제의 6세기 불상들에 대한 고찰로, 백제 6세기 불상양식의 전개과정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보다 北魏式에 가까운 6세기 전반 양식, 다음 납석제상으로 대표되는 6세기 중엽부터 후반의 양식, 다음 가탑리출토 여래입상 이후의 6세기 말경 양식 순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飛鳥時代 불상양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 중에는 일광삼존불상이건 단독상이건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의 本尊像과 직접 비교되는 소위 北魏式을 반영한 施無畏 與願印의 如來坐像은 전하는 예가 없고, 단지 禪定印의 군수리출토 여래좌상이 전한다. 이 군수리출토 여래좌상은 6세기 전반의 고식 양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상으로, 대좌를 덮고 있는 옷주름의 표현이 좌우대칭적이기는 하나 부드럽고 정적인 양식을 보여서 百濟 佛坐像의 양식이 두드러진 상이다. 그러나 臺座를 덮은 좌우대칭형의 2단의 둥근 옷주름 표현은 법륜사 석가삼존상을 포함한 일본 止利樣式 如來坐像의 裳懸臺座 양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蠟石製 菩薩像의 경우는 法隆寺 釋迦三尊像의 脇侍菩薩像과 형식이나 양식 모든 면에서 깊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먼저 형식 면에서 가운데가 아래로 뾰족한 목걸이, 가슴에 보이는 사선의 내의, 배에 둥글게 올라온 치마의 윗단, 굽은 허리띠와 긴 띠장식, 그리고 어깨로부터 몸의 좌우에서 대칭적으로 뻗치는 머리카락이나 천의 등의 표현이 일치

한다. 그리고 양식 면에서는 가슴과 팔 등에 약간 둥근 맛이 보이지만 佛身 전체에 보이는 편평함과 옷주름의 납작하면서도 예리한 조각양식, 그리고 강한 좌우대칭성 등이 흡사하다. 이와 같이 백제의 납석제 보살상과 일본의 법륜사 석가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이 양식적으로 매우 깊은 관련을 보이는 점은 석가삼존상의 조성시 모델이 되었던 상이 백제로부터 將來된 납석제 불상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止利樣式에 보이는 古式樣式은 넓게 百濟의 6世紀 佛像樣式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법륜사 석가삼존상으로 대표되는 止利樣式의 원류 문제는 일회적으로 중국의 北魏나 東魏代 佛像, 또는 高句麗 佛像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된 양식이라기보다는, 百濟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친 긴 시기 동안 유행된 佛, 菩薩像, 그리고 光背와 臺座 등의 舊樣式과 新樣式의 다양한 양식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쳐서 형성된 매우 복합적인 양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key words) — 부여출토 납석제불상(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 from Buyeo), 백제 6세기(The Second Half of 6th Century, Baekje), 일본 飛鳥時代(Asuka Period, Japan), 법륜사 금당 석가삼존상(Horyu-ji Kondo Shaka Trinity), 止利樣式(Tori Style)

日本 飛鳥時代 止利樣式의 원류 문제와 관련하여 百濟의 蠟石製 佛像들을 포함한 백제의 6세기 불상들의 양식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일본의 상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고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은 一光三尊佛과 單獨像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형식으로는 일광삼존불의 경우 本尊像이 立像과 坐像이 있고, 단독상의 경우는 如來坐像, 如來立像, 捧寶珠形 菩薩像, 半跏思惟像 등의 예가 있어서 당시 金銅佛의 도상과 일치함을 보인다. 따라서 蠟石像들은 당시 小金銅佛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 면에서는 定林寺址出土 납석제삼존불상의 예로 보건대 일광삼존불상이 단독상들보다 古式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상들 중에서는 부소산출토 납석제반가사유상이나 군수리출토 선정인 여래좌상이 양식적으로 올라가고 봉보주형 보살상들은 양식적으로 약간 내려가는 특징을 보여서 몸에 둥근 맛이 일부 드러나며, 그러나 옷주름은 아직도 편평하고 예리하게 옆으로 뻗치고 있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에서 납석제 불상이 조성되었던 시기는 6세기 중엽부터 말기까지의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납석상들의 양식은 전형적인 北魏樣式 상들과는 몸에 일부 입체감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 단계인 南朝의 梁樣式 내지는 東魏樣式의 상들과 연관을 보이며 특히 蠟石이라고 하는 재료에서 오는 독특한 조각양식이 특징이다. 한편 6세기 후반경에 유행한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砂巖製 佛像들과 관련이 깊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삼국시대 화강암제 石佛이 등장하기 바로 전 단계에 조성된 석상이 이들 납석제 불상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三國時代 石佛의 창안에 이들 백제의 납석상들은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납석제 불상과 근래 새로이 발견된 백제의 6세기 불상들에 대한 고찰로, 백제 6세기 불상 양식의 전개과정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보다 北魏式에 가까운 6세기 전반 양식, 다음 납석제상으로 대표되는 6세기 중엽부터 후반의 양식, 다음 가탑리출토 여래입상 이후의 6세기 말경 양식 순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飛鳥時代 불상양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백제의 납석제 불상들 중에는 일광삼존불상이건 단독상이건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의 本尊像과 직접 비교되는 소위 北魏式을 반영한 施無畏 與願印의 如來坐像은 전하는 예가 없고, 단지 禪定印의 군수리출토 여래좌상이 전한다. 이 군수리출토 여래좌상은 6세기 전반의 고식 양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상으로, 대좌를 덮고 있는 옷주름의 표

현이 좌우대칭적이기는 하나 부드럽고 정적인 양식을 보여서 百濟 佛坐像의 양식이 두드러진 상이다. 그러나 臺座를 덮은 좌우대칭형의 2단의 둥근 옷주름 표현은 법륜사 석가삼존상을 포함한 일본 止利樣式 如來坐像의 裳懸臺座 양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蠟石製 菩薩像의 경우는 法隆寺 釋迦三尊像의 脇侍菩薩像과 형식이나 양식 모든 면에서 깊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먼저 형식 면에서 가운데가 아래로 뾰족한 목걸이, 가슴에 보이는 사선의 내의, 배에 둥글게 올라온 치마의 윗단, 짧은 허리띠와 긴 띠장식, 그리고 어깨로부터 몸의 좌우에서 대칭적으로 뻗치는 머리카락이나 천의 등의 표현이 일치한다. 그리고 양식 면에서는 가슴과 팔 등에 약간 둥근 맛이 보이지만 佛身 전체에 보이는 편평함과 옷주름의 납작하면서도 예리한 조각양식, 그리고 강한 좌우대칭성 등이 흡사하다. 이와 같이 백제의 납석제 보살상과 일본의 법륜사 석가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이 양식적으로 매우 깊은 관련을 보이는 점은 석가삼존상의 조성시 모델이 되었던 상이 백제로부터 將來된 납석제 불상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止利樣式에 보이는 古式樣式은 넓게 百濟의 6世紀 佛像樣式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법륜사 석가삼존상으로 대표되는 止利樣式의 원류 문제는 일회적으로 중국의 北魏나 東魏代 佛像, 또는 高句麗 佛像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된 양식이라기보다는, 百濟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친 긴 시기 동안 유행된 佛, 菩薩像, 그리고 光背와 臺座 등의 舊樣式과 新樣式의 다양한 양식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쳐서 형성된 매우 복합적인 양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in the Second Half of 6th Century, Baekje

Kim Choonsi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its of Buddhist images of Baekje in the 6th century, including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in reference to the source of the Tori style during the Asuka Period of Japan and further made a comparative inquiry into the Buddhist images of Baekje and Japa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of Baekje were composed of Buddha Triads and single images. In terms of the forms, Buddha in Buddha Triads is either standing or seated, and single images contained seated or standing images, Bodhisattva with cintamani, and Pensive Bodhisattva, which all match the style of gilt-bronze Buddhist images during that time. From this,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are supposed to have been used for the same purpose as the then little gilt-bronze Buddhist images. In terms of the styles, particularly to compare with the agalmatolite Buddha Triad from the Jeongrim-sa site, Buddha Triads are considered to reflect the ancient style more than single images. Among single images, agalmatolite Pensive Bodhisattva excavated from Mt. Buso and the seated Buddha from Gunsu-ri features a high style. On the other hand, Bodhisattva images with cintamani stay low, exposing the round contour of the body and having the frills of clothing spread out flat and sharp.

From the above, it is presumed that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dates between the mid and late 6th century. The style of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ypical

ones from the Chinese Northern Wei style in that cubic effect partly appeared on the body and further is concerned with the images of Yang style of the Southern Dynasty or Chinese Eastern Wei style, featuring the peculiar mode of carving, obtained from the material of agalmatolite.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which prevailed during the last 6th century are presumably deeply concerned with the sandstone Buddhist images, which were widespread in the contemporary China, and are supposed to be the ones immediately before the granitic Buddhist imag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is respect,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to some extent, contributed to the advent of the granitic Buddhist imag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inquiries into both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and the recently-discovered of Baekje in the 6th century, the process in the style of Buddhist images of Baekje in the 6th century has become more clarified and it is presumed to progress in the following order: the style of the early 6th century was close to the Chinese Northern Wei style, the one of the middle was represented by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and the one of the end was stand for by the standing Buddha images excavated at the Gatap-ri site.

Among the agalmatolite Buddhist images of Baekje, whether Buddha Triads or single images, there do not remain any seated Buddha images with Abhaya Varada Mudras which are reflecting the Chinese Northern Wei style, directly compared with Buddha in the Horyu-ji Kondo Shaka Trinity, Japan, and only the seated Buddha image with Dhyana Mudra from the Gunsu-ri site has been handed down. The seated Buddha image found at the Gunsu-ri site is deviated from the ancient style during the early 6th century, having the pedestal-covering clothing spread bisymmetrically and noticeably showing a style of seated Buddhist images of Baekje with calm and silence. However, the two-fold bisymmetrical arched-frills, covering the pedestal, are considered to be deeply associated with a style of clothes hanging down over the pedestal which the seated Buddha images of the Tori style contain, including the Shaka Trinity of Horyu-ji Kondo.

The agalmatolite Bodhisattva images are deeply associated with the two Bodhisattva of Horyu-ji Kondo Shaka Trinity in all aspects of form and style. Necklaces with the sharpened middle casting down, slantly-drooping underclothes over the chest, the outer cloth of skirt swollen up at the abdomen, a thick belt and a long ornamental band, and symmetrically-stretching hair and veilrobe from both of the body match in terms of form. In terms of style, the overall flatness of images—even though the Buddha images expose a little inflated contour of the body—, the flat

and sharp carving of frills, and the strict bilateral symmetry are similar. In this manner, the agalmatolite Bodhisattva images of Baekje and the Bodhisattvas of the Horyu-ji Kondo Shaka Trinity are intimat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in style, from which a presumption is that the Horyu-ji Kondo Shaka Trinity modelled the agalmatolite Bodhisattva images of Baekje. Anyhow, it is explicated that the ancient style that the Tori style shows are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Baekje style of the 6th century.

Therefore, the Tori style of Japan represented by the Horyu-ji Kondo Shaka Trinity must be considered to originate from a combination of styles which were formed under the extensive influence of old and new Baekje style of Buddha, Bodhisattva, nimbus and pedestal in the second half of 6th and early 7th centuries, rather than to be temporarily affected by the style of the Chinese Northern Wei and Eastern Wei or Goguryeo.